

## 시1편 : 주석과 문학기법에 관한 연구<sup>1</sup>

김 호 남  
(구약학)

### 초록(Abstract)

이 논문은 구약 시편 전체에 대하여 시1편이 가지는 독특한 대표성과 서론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글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시1편에 사용된 문학적 기교들을 분석함으로써 시1편이 가지는 원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의 역할을 증명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이다. 비록 대부분의 학자들이 시1편은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편이 전체 시편을 대표하는 어떤 기준이나 방식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시1편은 소위 말하는 지혜시로 분류된다. 하지만 시1편은 일반적인 지혜시가 다루는 범주를 초월한다. 시1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고 있다. 시1편에서 저자는 축복된 삶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적절히 잘 이해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강조하

---

<sup>1</sup> 글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히브리어 원문에 한국어 음역을 달았으며, 또한 현장감 있는 표현을 위하여 옛 한글 역본이나, 영문을 그대로 인용 한 경우도 있음 밝힌다. 그리고 본문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경우는 한국어 음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언문을 넣었으며 필요한 경우는 그 뜻을 넣기도 했다.

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시 1편의 저자는 인류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강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점은 역시 성경 시편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 목적과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이 왜 시 1편이 전체 시편의 맨 앞에 위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유인데, 이를 위하여 시편의 기사는 다양한 문학적 기교들과 비유법들과 대조법들을 이 짧은 6절의 시편 안에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최소한 9가지 이상의 문학적 기교들이 사용되었으며, 더욱이 시 1편의 저자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집중력도 보이고 있다. 모든 시편을 통하여 짧은 6절 안에 9가지의 다양한 문학적 기법이 채용된 시편은 없다. 이런 모든 점들을 통찰해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시 1편이 그 주제와 사용된 문학적 기법으로 인하여 전 시편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이고, 이를 위하여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문학적 기교들이 집중적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figure out a unique role of Psalm 1 as a representative and an introduction of the Old Testament Psalms. In other words, this writing will concentrate to prove Ps.1's original intension by examining its literary techniques applied for representing to the biblical Psalms. There are no confirmed methods or standards to prove its representative role towards whole Psalms, even the most scholars have agreed and accepted Ps.1's function and unique place of the Psalms. For example, Ps. 1 has been sorted into so called wisdom Psalms, but it deals beyond wisdom Psalms' realms. Ps.1 deals with not only on the wise life but also about God's sovereignty over the human destiny. The author of Ps.1 seems to emphasize on the truth that a blessed life does not come to us automatically but it will be realized by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Torah. On this perspective, the author wants to emphasize the supreme

goal of human being that is the life in the presence of the God. This also might be a genuine and common goal of human being emphasized through whole biblical Psalms. That is why the Psalmist has placed Ps.1 at the entrance of the Psalms. As approval of this, the author uses many kinds of literary skills, metaphors, and comparisons into this 6 verses short psalm. There are over 9 kinds of literary devices used within this psalm. There are no psalms like Ps.1 in which uses 9 kinds of literary devices within 6 verses in the Psalms. Furthermore the author continues to keep its mono theme mentioned above throughout psalm 1. To review all these, there are no doubt that Ps.1 was designed for representing and introducing whole Psalms.

## 1. 서론

‘복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시편 제 1편은 많은 신자들과 설교자들에게 의해 애송되는 시중의 하나이며, 그 내용과 구조가 일견 단순하여 쉽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특징이 있는 시이다. 역사적으로 본 시편은 그 문학적 양식이 지혜시 혹은 토라시로 이해되어 왔고<sup>2</sup> 그 기능은 시편 전체

<sup>2</sup> 시 1편의 지혜시적 특성은 시편의 양식분류 방식의 태두라 할 수 있는 H. Gunkel의 평가일 뿐 아니라 구약 지혜문헌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J.L. Crenshaw 같은 학자들이 동의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 뿐 아니라 많은 구약학자들이 시 1편의 지혜시적 특성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라:

J.L. Crenshaw, *The Psalm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Cambridge, 2001), 87-95; C. Westermann, *The Living Psalms*, Trns. by J.R. Porter (Edinburgh, T.&T. Clark LTD, 1989), 292; H.J. Kraus, *Psalms 1-59*, Trns. by Oswald H.C., (Min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88), 59; P.D. Miller JR., *Interpreting the Psalms* (Fortress Press, 1986), 81-86.; P.C. Craigie, *Psalms 1-50 WBC* 19 (Texas, word book, 1995), 59. 뿐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은 시 1편을 토라시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다: B.de Pinto, “The Torah and the Psalms”, *JBL* 86(1967), pp.154-74; A. Schokel, *I Salmi I* (Roma, 1992), p.141; 박영식 “*생명의 샘과 인생길*”(서울, 성바오로, 1999), pp. 165-179.

의 서론으로 이해되어 왔다.<sup>3</sup> 그러나 시 1편은 그 구조와 사용되고 있는 문학적 기법의 다양성을 인하여 이 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일에 어려움을 보이는 시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이 시의 지혜시적 특성을 인하여 이 시는 구속사적 해석이나 복음과의 연계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시 1편은 단순히 이 시가 시편의 맨 앞에 위치한다 하여 신년 예배용으로 사용되기까지하는 혼돈을 야기시키기도 하는 시이다. 본 논고의 목적은 시 1편 저자의 원래의 저작 목적을 추적해 보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필자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 1편의 저자도 그의 청중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작시 혹은 편집했을 것이라 전제한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고, 또한 치밀하게 계산된 문학적 구성 전략을 구사하였을 것이라 전제한다. 그래서 본고는 현재의 본문을 주석적

<sup>3</sup> 대부분의 시편 학자들은 새 편을 전체 시편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런데 그들중 어떤 학자들은 시편의 서론은 단지 새 편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시 2편과 합하여 시편의 서론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는 시 1편의 첫 단어인 '복있도다'가 시 2편의 마지막에 다시 반복되지 않고 시 2편의 마지막절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며, 새 편에는 구속사적 상징들이 전혀 없지만 시 2편에는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초기 기독교 전승에는 행전 13:33절에서 시 2:7절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첫번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인용하고 있는데, 후대의 헬라어 사본과 영역본에서 이것을 시편의 첫째 편에 라고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시편 공히 표제가 없는 것도 두 시가 원래 하나의 시로서 시편의 서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시 2편과 함께 전체 시편의 서론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Cole R., "An Integrated Resading of Psalm 1 and 2" JSOT98 (2002), pp.75-88; Brownlee W.H. 같은 이인데 그의 글 "Psalms1-2 as a Coronation Liturgy" Bib52(1971), pp. 321-26을 참고하라. 또한 바벨론 탈무드 Babelonian Talmud. *Berakoth*, 9b.도 참고하라. 이런 논증들에 대하여 P.C. Craigie의 *앞의 책*을 참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Delitzsch F.와 많은 대다수 시편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그런 해석은 시편의 수집과 편집 과정에서 편집자가 그렇게 배열해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새 편은 독자적으로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Psalms,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Tr. By Martin J.(Grand Rapids, Eerdmanns,1980), p. 82. 한국의 김정우, 최중태, 손석태 교수 등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Briggs C.A., *The Book of Psalms ICC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LTD, 1987), p. 3.

으로 분석하여 확정된 후, 저자가 선택하고 전개한 본문의 구성 전략을 분석해 봄으로서 저자가 그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했던 원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시편의 집성 연대는 거의 구약 전체의 집성 연대와 필적할만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은 시편 연구의 오랜 전통에 대한 자랑을 함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편 연구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본고의 목적이 시편의 저자를 밝히거나 집성 시기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한다. 하지만 시 1편이 가지는 서론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다시 강조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본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문학적 기교들을 동원하여 메시지를 다듬어 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M. Dahood 같은 학자는 시 1편을 "more than an Introduction to the psalter, it is rather a precis of the Book of Psalms"<sup>4</sup>까지 평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 1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이어지는 모든 시편 해석에 좋은 지향점을 갖게 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문학 작품의 저자들이 나름대로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상되는 독자들과 소통하려 했을 것임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점에서 필자는 시 1편이 자체적으로 완전하고 독립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시편의 서론적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시임을 그 사용된 문학 기법들을 분석함을 통하여 논증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G.H. Wilson은 시 1편이 가지는 기능과 전략적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 1편은 시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즉 시 1편은 예배 상황에서 재현되어야 할 의전용이 아니라 읽고 묵상해야 할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말해 준다. 시 1편은 개개 시편이 제시한다고 가정된 그런 개개 예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시편 전체의 보다 큰 문맥으로 향하게 한다. 시 1편은 이런 접근의

<sup>4</sup>M. Dahood, *Psalms1(1-50) Anchor Bible Commentary* (NY, Doubleday,1966), 1.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sup>5</sup> 비록 시1편의 지혜시적 특성이 이 시의 더 큰 목적을 보게 하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본 시편이 가지는 문학 기법의 풍성함에 더하여 지혜시적 기능은 오히려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한다고 여겨진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본고의 주된 목적은 시1편이 가지는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자는 다양한 문학적 기교를 이 짧은 시안에 농축시켜 사용함으로써 시1편이 시편의 모든 시를 대표할만 서론적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를 지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그 작업을 위해 본고는 먼저, 대상으로 삼는 히브리어 표준 본문에 대한 주석적 연구로 시작될 것이다. 이는 맛소라 본문(MT)을 전수한 것으로 여겨지는 BHS 본문인데 먼저 그것에 대한 주석적 분석을 통해 본문을 확정된 후, 시1편으로 하여금 전체 시편의 서론적 위치를 점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문학적 기법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편의를 위하여 영어본은 NIV로 하고 비교를 위해 한글의 옛 번역본도 간혹 인용하겠지만 주된 한글 번역본은 최근에 개정된 한글 개역 개정판으로 삼겠다.<sup>6</sup>

## 2. 본문 주석과 설명

### 1절:

אֲשֶׁר־הָאִישׁ אֲשֶׁר לֹא הָלַךְ בְּעֵצַת רְשָׁעִים וּבְדַרְךְ חַטָּאִים לֹא עָמַד  
וּבְמוֹשָׁב לְצִים לֹא יָשָׁב: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한글 개역 개역)

시1편의 첫 단어인 אֲשֶׁר(아쉐레이/복되도다)는 문법적으로 복수 연

계형인데 둘째 단어인 חָיִי(하이쉬/사람, 그 남자, 단수)에 종속된다. 그래서 첫 두 단어를 직역하자면 “그 사람의 복들”이 된다. 이는 일반적인 연계형 표현시의 ‘수의 일치’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많은 학설이 있다. 예를 들면 이 두 단어에는 이를 수식하는 술어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를 K. 세이볼드의 주장처럼 명사 기원문의 용례7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게 될 때 본문은 “그 사람은 복있도다” 혹은 “행복하도다 그 사람은”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1절의 시리아 역에서는 ܢܘܫܐ(비아차트/피, 충고, 회의, 회합)와 ܕܘܪܘܟܐ(버데레크/길)가 서로 뒤바뀌어 나와 있다. 시리아 역을 따라 1절의 첫 두 소절을 해석하면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에 서지 아니하며”가 된다. 시리아 역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은 처음에 사용된 동사가 ‘걷다/하라크’이니 당연히 ‘길/데레크’가 어울릴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둘째 구절은 ‘피’와 ‘서다/아마드’가 어울려 죄인들의 ‘꾀에 서다’라는 어색함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M. Dahood는 ‘아차트’를 ‘회의-council’로 번역하고 있고, Bergmeier같은 학자는 쿰란 사본의 용례를 근거로 ‘아차트’를 ‘교제-fellowship’으로 번역하기도 한다.<sup>8</sup> 그런데 만약 위의 학자들이 제시하는데로, 문제가 되는 히브리어 ‘아차트’를 회의나 회합 혹은 교제등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본문은 좀 더 유연하게 흐르게 된다. ‘로 하라크 비아차트 르샤임/רְשָׁעִים בְּעֵצַת הָלַךְ - ‘우버데레크 하타임 로 아마드/עָמַד לֹא חַטָּאִים וּבְדַרְךְ חַטָּאִים 즉 ‘악인들의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며 - 죄인들의 회합에 서지(참석치)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임으로 두 용법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시리아 역으로 교체할 필요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랍비 A.J. 로젠버그의 해석<sup>9</sup>에

<sup>7</sup> Seybold K., “Die Psalmen” HATI 15(Tübingen, Mohr,1996), p. 28을 참조하라

<sup>8</sup> Craigie P.C., *Psalms 1-50* WBC 19(Texas, word book,1995), p. 58.

<sup>9</sup> Rosenberg A.J., *Psalms* vol. 1. A new English translation, (NY. The Judaica Press,1991), p. 3.

<sup>5</sup> Gerald. H. Wilson, “Editing of the Hebrew Psalter” SBLDS76 Chico, (California, Scholars press1985), 207.

<sup>6</sup> NIV판은 1978년 판이고, NKRV(한글개역개정판)은 2005년 판을 사용했다.

의하면 히브리어 קָלַל을 ‘걷는다’가 아니라 ‘~을 따른다’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문은 원래 MT의 모양대로 해석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즉 “복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회의의 결정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는 해석에 무리가 없게 된다는 말이다.

1절에는 죄인 혹은 악인을 묘사하는 세 개의 명사가 나타난다. 처음의 단어는 ‘악인’으로 번역된 אֲשֶׁר / ‘르샤임’인데 이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고 일반적으로는 율법에 비추어 죄인으로 판명되어 제사장에게 의해 성소 출입이 금지된 자를 말한다.<sup>10</sup> 그리고 본문에서 ‘죄인’으로 번역된 용어는 אֲשֶׁר / ‘하타임’인데 이는 손석태 교수의 설명<sup>11</sup>에 의하면 “표적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 즉 특별한 계명이나 금지사항을 어긴 사람”을 말한다. 그 다음의 문제는 ‘모샤브 레이 침-오만한 자의 자리’에 사용된 ‘오만한 자’에 해당되는 אֲשֶׁר / ‘레이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동사의 형 ‘루츠’는 ‘막연하게 말하다’라는 뜻으로, 그 동사의 명사형인 ‘레츠’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혹은 아무렇게나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사실 이 단어 ‘레이침’은 구약에서 단 4회만 사용된 매우 드문 단어인데 여기서 특별히 선정된 이유는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1절 후반절이 가지려는 소위 ‘음성적 교재배열법’을 위한 고려<sup>12</sup>라고 여겨지고 있다. ‘레이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뜻은 ‘스스로 자족하여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잠 21:24)을 말하며, 영어의 scoffer(비웃는 자)라는 번역은 ‘종교 혹은 기타 존중해야 할 것을 비웃는 자’라는 뜻이 있는 말이다.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오만한 자’ 즉 ‘오만하게 조롱자 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sup>10</sup> Kraus H.J., *Die Psalmen*, BK15(Neukirchen,Vluyn,1961),p.116.; Koehler L., *Old Testament Theology*, 1975, p. 171.

<sup>11</sup> 손석태, “시편 편의 구조와 해석”, *개신논집*3, (2002), p. 91.

<sup>12</sup> 김혜운 교수에 의하면 1절 후반절의 אֲשֶׁר לֹא יִצְטָק וְעָלָהּ의 구조는 음성학적으로 ‘ב-ל-ל-ב’의 구조를 띄고 있다면서 이를 ‘음성적 교재배열법’이라 표기하고 있다. 참고, 그녀의 글 ‘시편 1편에 대한 비평적 연구: 지혜시적 성격과 문학적 구조’ *신학전망*(153), 2006, p. 15.

## 2절:

כִּי אִם בְּתוֹרַת יְהוָה תִּפְצַח וּבְתוֹרָתוֹ יִהְיֶה יוֹמָם וְלַיְלָלָה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글 개정 개역)

2절의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본절의 첫째 부분에 서술 동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앞에서 언급되었으므로 뒤에 문학 기법을 다루는 항목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동사가 없다고 그 부분이 서술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절의 본문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히브리어 יִהְיֶה / ‘예흐까 묵상하다’ 라는 단어의 용례에 관한 것이다. 이 단어의 어근인 ‘하카’는 ‘단순히 묵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단어는 ‘중얼거리거나 속삭이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음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일종의 의성어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라 하겠다. 즉 ‘즐거워해서 소리내어 웅얼거리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칼빈은 ‘성경 연구’로 이해<sup>13</sup>한 반면, M. Dahood는 이것의 우가릿 어원을 들어 ‘기뻐하다가 마침내 소릴 내어 읊조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some of oral activity’가 동반되는 상태라고 설명하는데<sup>14</sup> 이유가 있는 설명이라 하겠다.

## 3절:

וְהָיָה כְּעֵץ שָׁחוּל עַל-פְּלִיגֵי מָוֶם אֲשֶׁר פָּרְיוֹ יִתֵּן בְּעֵתוֹ וְעָלָהּ לֹא-יִבּוֹל  
וְכָל אֲשֶׁר-יַעֲשֶׂה יִצָּלֵחַ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

<sup>13</sup> J.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Book1, Pslam1:2.

<sup>14</sup> M Dahood, *Ibid.*, 2.

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한글 개정 개역)

3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관계대명사 אֲשֶׁר(아쉐르)가 두 번 쓰였는데, 포로 후 히브리어의 구어 형태인 아람어로 쓰여진 탈군역에서는 첫 번째 아쉐르가 생략되어 나타난다. 그 앞뒤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아쉐르: 그 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그것의 시절에 낸다.” 여기서 어떤 이는 이 관계대명사가 없는 것이 본문 해석에 더 유연하다고 생각하지만<sup>15</sup> 필자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이후의 문맥은 앞의 나무(에이크<sup>16</sup>)를 이어 받아 오는 3인칭 남성 단수의 인칭대명사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 1편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사용된 3절은 2절에서 설명된 ‘의인’이 거둘 열매와 상급과 외형적 특성을 대유법을 써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의인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나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인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처음 두 가지 의인의 누릴 축복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대유를 통해 설명되었지만 이는 곧 바로 의인이 세 번째 받을 축복인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는 마지막 설명에서 이 비유가 의인이 누릴 축복임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4절:

לֹא יֵכֶן הַרְשָׁעִים כִּי אֲסַכְּמִין אֲשֶׁר־תִּקְרָבֵנּוּ תַּיָּתִי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한글 개정 개역)

4절의 본문은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칠십인경(LXX)의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구절이 더 첨가되기에 문제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אֲשֶׁר־תִּקְרָבֵנּוּ / ‘로-케인 하르샤임’ 뒤에 다시 ‘그렇지 않다(로 케인)’에 해당되는 헬라어 οὐχ οὕτως)를 삽입하고 있어서 표기했다. 그래서 이를 직역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손석태교수는 이런 한 번 더 첨가하여 강조하는 칠십인경의 표현을 “마치 옆에서 맞장구 치듯히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는 기법이긴 하지만 의미 전달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6</sup> 또한 LXX는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할 때에도 ‘땅의 표면으로부터(ἀπὸ προσώπου τῆς γῆς)’라는 구절을 첨가하여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어 אֲשֶׁר־תִּקְרָבֵנּוּ ‘티드펜누(원형/나다프 팔 imf.3.f.s.)는 ‘날려가다, 날려 없어지다’라는 뜻인데 그 날려가는 겨가 땅의 표면으로부터 날려 다니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이 구절이 첨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맞소리 사본의 문체상의 비약을 피하기 위해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본문은 그냥 ‘땅의 표면으로부터’라는 부가 설명이 없어도 겨가 그렇게 날려다니는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LXX의 표현은 불필요하게 설명이 부가된 것이라 여겨지고 상대적으로 MT의 본문이 더 간결하고 정확한 것이 여겨진다. 이는 G.L. 아처가 설명한 사본들 사이의 차이에 있어서 보다 원문에 가까운 표현을 추출하는 기준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다. 그는 더 어려운 독법이나 더 짧은 독법일 수록 신빙성이 크다고 주장했다.<sup>17</sup> 특별히 구약에서 ‘겨’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타작 마당 비유에 종종 사용되는 소재<sup>18</sup>이므로 굳이 땅의 표면으로부터 라는 LXX의 부기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님을 이해하게 된다.

<sup>16</sup> 손석태 *Ibid.*, 96.

<sup>17</sup> G.L. Archer, *A Survey of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94), 83-87. 이

원칙에 해당되는 기준은 보다 간결한 표현이 원문에 가까울 수 있다는 원칙이다.

<sup>18</sup> 참고 시 35:5; 호 13:3; 눅 3:17 등.

<sup>15</sup> 김혜윤, *Ibid.*, 5.



유익이 있겠다. 주로 영미권에서는 이 단어를 to know, to watch over, care for, regard 등으로 번역하는데 반하여 한국과 중국어 권에서는 기쁨, 희열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1925년에 발간된 한글 성서 이원모역에서는 ‘깃버하심이어’라고 하고 있고 한글 구역에서는 ‘아시나나로 1939년의 한글 개역본에서는 ‘인정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중국의 북경관화역은 이를 ‘희열’로 번역하여 ‘의인의 길은 야훼의 기쁨이었다’로 번역한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וְיָדַעְתָּ יְהוָה אֱלֹהֵינוּ וְיָדַעְתָּ יְהוָה אֱלֹהֵינוּ 히브리어 ‘데렉 르샤임/ 악인들의 길’은 1절에서 나오는 용어이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문학적으로 일종의 반복 강조법이라 할 수 있겠다.

시1편의 마지막 어구인 6절 하반부의 베테렉 르샤임 토베이드

וְיָדַעְתָּ יְהוָה אֱלֹהֵינוּ וְיָדַעְתָּ יְהוָה אֱלֹהֵינוּ는 악인은 망하는데 구태여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 없이도 스스로 망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구절에는 ‘아도나이하나님’에 대한 명시가 없다. 그리고 시1편의 마지막 단어는 וְיָדַעְתָּ(will perish, וְיָדַעְתָּ의 Qal impf 3f.sg.)이다. 이는 역시 앞 절에서 보였던 후반절 동사의 과감한 생략과 달리 또 다른 파격을 제시하며 동사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솜씨를 보이고 있다. 놀랍게도 여기서 선택된 시1편의 마지막 단어는 1절의 첫 단어가 그 알파벳의 선택과 그 의미론적 관점에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의 시편에 사용된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의 항목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하여 시1편에 대한 주석적 본문 고찰 작업을 정리한다.

시1편의 마소라 본문은 비교적 잘 보존된 히브리어 후기 용례를 보이고 있고, 본문상 이독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단어의 배열의 문제나 헬라이어 역본에서의 첨가나 누락 등은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여 본고는 현재의 BHS 본문을 중심으로 그 본문에 사용된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살펴보고 시1편의 위용과 치밀한 구성 전략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다.

### 3. 시1편에 사용된 문학적 기법 분석

앞에서는 주석적 분석을 위하여 시1편의 각 절 별로 본문을 보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본 시에 사용된 문학적 기법들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다. 문학 기법을 분석해 내려는 첫번째 작업은 일단 본문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큰 틀에서 전체의 구조를 살핀 후 하나씩 사용된 문학 기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시1편의 구조에 대하여 학자들은 아래의 범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구조 분석을 제시한다. 이는 이 시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지대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본 시의 주제를 강조, 파악해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구분법이라 어느 것 하나도 의미없는 분류가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질문은 사용된 다양한 구조분석이나, 사용된 많은 문학적 기법들 그것들 자체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좀 더 다른 곳에 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짧은 6절로 된 시 안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구조분석과 문학적 기법들이 장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편은 전체로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즉 시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단초를 이 작업을 통해 풀어가려는 것이다. 카바난트 신학교의 Jack Collins 교수는 시의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것이 그 시의 의미를 풀어가는 ‘핵심적 단계/a key step toward discerning the meaning’라고 주장하면서 시1편을 분류하는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과 주요 시편 학자들의 구조 분석 일람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sup>22</sup>

(본문의 단락 나누기) --- (번역본과 주요 학자들)

1-3/4-5/6 ----- NIV; REB; NKJV; HCSB; Goerling; Broyles; Gerstenberger; Graigie; Kraus

1-3/4-6 ----- RSV; NSAB; NAB; JPSA; Bratcher-Reyburn; Anderson; Delitzsch

<sup>22</sup> C. J. Collins, “Psalm1: Structure and Rhetoric”, *Presbyterian: covenant Seminary review*31/1 (spring 2005), 37.



- 1-2/3-4/5-6 ---- ESV; Hakham  
 1-2/3-4a/4b-6 ---- NJB  
 1-2/3/4-6/ ----- Terrien  
 1/2-3/4-6 ----- Hosch  
 1/2-3/4-5/6 ----- Beaucamp  
 1/2-3/4/5-6 ----- Auffret

### 1) 교차대조 구조를 통한 주제 강조법:

이런 많은 다양한 결론들은 결국 시편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지만 일치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일단 대부분의 영역본과 학자들이 채택한 분류 방식의 효율성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시 1편을 이렇게 세 연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연(1-3절)은 의인의 정체성과 받을 상급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연(4-5절)은 악인의 정체성과 그 받을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결론적 요약으로 한 절 안에 의인과 악이 함께 묘사되고 있는 구조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또한 J.T. 일러스나 한국의 손석태교수처럼 마지막 절을 본문 교차대조 방식의 변형으로 이해할 때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4절의 시작 어구인 히브리어 ‘יְדֹנָן/로 켄’이 1-3절에서 예시된 의인의 모습 전체를 부정하는가? 아니면 3절 전반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만을 부정하는가에 대한 견해에 달려 있다. 이 견해는 1-5절 사이에는 일정한 교차대조법적 구조가 있는데 마지막 절인 제6절은 결론적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다른 이견<sup>23</sup>

<sup>23</sup>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분류는 ICC 주석을 쓴 C. A. Briggs의 견해와 W. Vogels의 견해이다. 브릭스는 3절의 비유를 첨가절로 이해하면서 1-2절과 4-6절을 구분했고 W. Vogels는 1-5절 사이의 교차대조로 본문을 이해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김경우 교수는 가(1-2)승(3)전(4-5)절(6)의 방식으로 이해했으며, C.J. Collins 같은 경우는 3-4절을 같은 연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김상기 교수 같은 이는 본문을 열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세세하고 특별한 교차대조 형식으로

이 있지만 대부분은 상기의 첫 번째 분류에 동의하고 있고, 본고 역시 그 관점에서 본문을 설명해 가겠다. 이에 대하여 손석태 교수는 6절을 따로 떼어 3절과 4절 사이에 넣는 약간의 변형된 교차대조법(modified Chiasmus)<sup>24</sup>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결론적인 6절이 사실은 3절과 4절 사이에 와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확실하게 결론 내려야 하는데, 그건 너무 뻘하고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 교차대조법 구조에 변형을 가해 그 그절을 마지막에 배열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파격을 위하여 실제로 3절 다음에 와야하는 6절의 내용이 마지막에 배치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역시 추측일 뿐이다. 본문의 구조를 볼때 처음 의인의 모습을 위하여 3절이 배정되고 악인을 위하여는 두 절이 할당되었으며, 그 양자의 결론적 선언으로 한 절이 분정되었다면 굳이 파격이니 변형이니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한 본문 안의 교차대조법이 꼭 전체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있는가? 교차대조법은 한 절 안에서든, 그리고 두 세절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1-3절을 통한 의인의 모습과 4-5절을 통한 악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의 양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합의할 수 없는 다양한 구조 분석에 대한 이해를 잠시 두고 본문에 사용된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다양한 구조 분석들의 일치된 결론 하나는 그래도 본문의 결론이 마지막 절인 6절에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기본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있다 하겠다.

### 2) 히브리시의 전형적 기법인 평행법의 다양한 사용:

본 시에 적용된 여러 문학적 기법들 가운데, 먼저 생각하려는 것은 히

본문을 이해하고 있다.  
<sup>24</sup> 손석태 *Ibid.*, 87.

브리 시의 가장 전형적인 기법인 평행법의 사용이다. 시1편에는 1절에서 삼중 동의 평행법(Threefold synonymous parallelism)이 발견되고, 5절에서는 악인은 ‘심판도 견디지 못할 뿐 더러’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기본적 동의 평행법이 드러나있다. 6절에서는 ‘의인의 인정 받음’과 ‘악인의 망함’이 반의 평행법(antithetic parallelism)을 통하여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2절은 종합 평행법(synthetic parallelism)으로 포장되어 있다. 1절에 있는 삼중 동의 평행법은 3절에 다시 나온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된 의인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 한 절 안에서 이루어지던 평행법은 이제 범위를 좀 더 넓혀 1-3절과 4-5절이라는 연단위의 반의 평행법이 형성되어 있어서 시1편에는 이런 평행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시1편에 사용된 삼중적 평행법들은 전하려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증폭, 강화(gradual ascent)시켜 가는 기능<sup>25</sup>을 하게 된다. 1절에서 동의 병행을 위해 동원된 것은 두 세트의 세 명사 인데, ‘악인’ - ‘죄인’ - ‘오만한 자’라는 악한 자를 묘사하는 명사군과 ‘피에’ - ‘길에’ - ‘모임, 자리에’를 의미하는 동사의 목적격 적인 장소적 부사구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점점 넓혀지는 이미지로 독자들을 이끌고 있다. 1절에 사용된 세 동사 역시 ‘따라가다’ - ‘서다’ - ‘앉다’인데 이를 연결하면 하나의 동작이 움직이다 정지하고 마침내 자리에 앉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보통의 평행법이 2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 시1편의 제1절에서 사용된 것은 3중 구조의 동의 평행법이며, 그것도 명사와 동사의 평행을 함께 구사하고 있으며, 평행 강조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와 두 세트의 명사에 대한 해석은 대체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죄악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과 반대로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여기서 필자는 전자의 해석 전통을 따라 본문을 보려한다. 하지만 이 단락을 해석을 위한 단락이기 보다는 사용된 문학 기법을 다루는 중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약한다.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걷는다’ ‘선다’ 보다 ‘앉는다’ 하는 동사가 더 강력하게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이란 해석도 팽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악한 일이 좋아서 막 달려간다는 의미에서는 걷다- 서다- 앉다는 순서대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해석하면 그저 처음엔 적당히 쫓아가는 그룹에 있다가, 이제 그 악인들의 그룹내에서 서서 말할 수 있는 한 자리를 차지했고, 마침내는 그 그룹들의 수장이 되어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그런 해석이라면 죄의 강도가 동사에 따라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주장이 논리적이라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복있는 사람은 그렇게 점차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 3) 운율을 위한 동사 생략법과 명사 기원문의 반복 사용:

2절은 가운데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를 중심으로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 4개의 운율 즉 2절 전체가 4+4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반절에 있어야 할 동사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כִּי אִם בְּתוֹרַת ה' הָנָה הַכָּצוֹ // וּבְתוֹרַתוֹ הָנָה יוֹמָם לְלַיְלָה

물론 시편에서 운율을 찾거나 맞추기는 H.J. Kraus의 지적처럼<sup>27</sup> 상당

<sup>25</sup> E.W. Bullinger, *Figure of Speech used in the Bible* (Grand Rapids, Michigan, 1990), 429.

<sup>26</sup> 참고 이 해석에 대하여 김정우 교수의 설명을 참고하라. 김정우, 시편주석(서울총신대출판부, 2011), 153-54. 그의 설명에 따르면 Reif는 이미 이븐 예즈라 시대 때 부터 이것이 점증법인지 그 반대 점점 약해지는 것 Diminuendo)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랍비들의 관점으로는 죄가 점점 자라고 강해지고 있다는 견해(D. Qimchi, J. Calvin, F. Hitzig, H. Hupfeld) 이고 후대에 와서 커크 패트릭이나 G.W. Anderson 등은 후자로 본다고 관점을 정리하고 있다.

<sup>27</sup> H.J. Kraus, *Psalms 1-50 A Commentary* (Mi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78),

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여기 두 개의 예문에서 보듯이 시 1 편의 2, 5 절에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편저자가 의도적으로 동사를 생략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시 1 편에는 두 번에 걸쳐 명사키원문형을 반복 사용되고 있다. 1 절의 첫 두 어구인 ‘복있도다 그 사람이여’ 하는 구절에도 동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있는 것 같이 해석된다고 이미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2 절의 전반부에 사용된 **וְאֵלֶּיךָ יְהוָה אֱלֹהֵינוּ** 구문인데, 여기는 동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앞 절의 ‘복있는 사람’을 그 대로 이어와서 ‘복있는 사람은 주님의 율법으로 그의 기쁨을 삼는 사람이다’ 라고 온전한 문장으로 읽을 수 있다.

5 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상반절에 있는 **לֹא יָקֻמוּ רְשָׁעִים בְּמִשְׁפָּחָם**(로야쿠무 르샤임 바미쉬파트)는 주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절을 형성하고 있음에 반하여 하반절인 **בְּעֵרְתָּ בְּעַלְמָיִם**(버하타임 바아다트 차디킴)은 ‘그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하고 끝을 못맺게 된다. 이는 상반절에 있었던 ‘로-쿰 일어나지 못하다’가 하반절에서 반복되어야 하는데 생략되었음을 의미하며 그래서 해석할 때에는 마치 그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즉 5 절의 맨 앞의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알-케인을 빼면 전반부는 로-야쿠무 르샤임 바미쉬파트 즉 세 음절이 된다. 그래서 5 절은 3+3 운율을 이루고 있고, 상반절의 이런 3 운을 맞추기 위하여 후반부에 ‘로 야쿠무’가 생략되고 ‘버하타임 바아다트 차디킴’의 구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sup>28</sup>

114. 그러나 S. Bullough, “The Question of Metre in Psalm 1”, *VT*17 (1967), 42-49 와 P. van der Lugt, *Cantos and Strophes in Biblical Hebrew Poetry*, OS53 (Leiden, Boston, 2006), 93-98에서는 시편의 운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sup>28</sup> E.W. Bullinger, *Figure of Speech used in the Bible* (Grand Rapids, Michigan, 1990), 82. 그에 의하면 히브리 시의 몇 구 형식 확립을 위하여 상반절이나 앞에 동사가 등장했다면 그 다음 구절에서는 종종 동사를 생략시켜 운율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 4) 음성학적인 유사성과 대차 구조법의 사용:

이것은 아마도 본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연구 파트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시 1 편에는 문법적 평행이 일어나도록 단어를 선별하고 배열한 것에 더하여 연이어 있는 시적 표현 사이에 음성학적인 유사성이 이어지도록 배려되어 있음도 알게된다. 흔히 영시의 두운과 각운의 효과가 여기 시 1 편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인데 우선 각운의 효과가 나는 3 절의 마지막 소절과 4 절의 마지막 소절을 음역으로 읽어보자. ‘야아쉐 야즈리아호’(3절) **יְהוָה יִשְׁמְרֵנוּ** - ‘티드펜누 루아호’(4절) **יְהוָה יִשְׁמְרֵנוּ** 각 절의 끝은 영어의 강하고 탁한 ‘h’ 발음으로 끝나고 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장에서 탁한 ‘h’ 발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절에서 연이어 그 발음으로 끝나도록 배치한 것은 그 둘 사이에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상징하는 배열인 것이다.

그런 현상은 4 절과 5 절로 이어지는 두운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시 확인된다. 4 절이 히브리어 ‘로-케인’ **לֹא-קֵיִן**으로 시작되는데 반하여, 5 절은 히브리어 ‘알-케인’ **אֵל-קֵיִן**으로 시작되고 있다. 마켈로 이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한 액센트 발음군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두 절의 시작은 두 절간에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 절의 ‘케이이츠’ **קֵיִיץ**/나무처럼이란 발음과 4 절의 ‘카모츠’ **קָמוֹץ**/겨와같이와 같은 표현 역시 음성적 유사성으로 이미지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기법의 결과이다.

이외에도 1 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브모샤브 레이침 로 야샤브’ **וּבְמוֹשָׁבַי רַעִים לֹא יִשְׁכְּבוּ**는 히브리어로 그 머릿글을 배열해 보면 **ב-ל-ב** 즉 b-l-b의 두성으로 시작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히브리 시의 발성학적 유사성<sup>29</sup>을 유도하는 기법으로 여겨진다. 이런 방식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 축복하셨을 때 즉 창 12

<sup>29</sup> 김혜운, *Ibid.*, 15. 김혜운은 여기서 이런 발성학적 교차배열을 완성하기 위해 첫 단어를 야샤브의 분사형태로까지라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 1-3절 사이에서 'lk' 혹은 'brk' 발음이 계속 반복되어 유사성을 유발하는 경향<sup>30</sup>과 비슷한 것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1편에는 본문을 읽고 낭송할 때 누릴 수 있는 음성학적 배려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알파벳 수미일치법<sup>31</sup>:

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이 시1편의 첫 단어는 아쉐레이(אֲשֵׁרַי 복있도다) 하고 시작되는데 반하여 마지막 단어는 토베이드(טוֹבֵיֶדֶד 망하리로다)로 끝나고 있는데 이는 그 의미상 묘한 인클루시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상의 인클루시옌뿐 아니라 본 시편은 첫 단어 '아쉐레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단어 '알렐'으로 시작되고, 반면에 마지막 단어 '토베이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단어 '타우'로 끝나고 있다. 이렇게 알파벳의 선택에 있어서도 인클루시옌을 형성하고 있는데, 물론 두 단어는 다 여성형이다.

#### 7) 비유법 통한 주제의 대조 강조법:

시1편은 그런 히브리 시의 문학적 기법이나 문법적 기법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문학에도 흔히 사용되는 비유법등을 통하여 전하려는 이미지를 강하게 대조, 각인시키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며 그 특성이며 그들이 맞이하게 될 숙명적 운명까지를 다 망라하면서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30 예를 들면 창세기12장 1절의 '레크 르카 메야르츠카 우맘미르드터카 우미비이트 아비아카...' 하는 1절과 2절의 '바이바레카가 바이기돌라 셔메카 베하예 바라카' 등의 문장을 읽어보면 lk로 이어지는 발성적 유사성과 brk로 이어지는 발성이 계속됨을 금방 느낄 수 있다.

31 이런 알파벳을 사용한 기법을 주로 답관체 시(Acrostic Psalms)라 하는데 이 대하여는 Gerstenberger E.S., *Psalm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Grand Rapids, Michigan, 1988), p. 20. 과 Kraus H.J., *Ibid.*, p.11; Schokel A., *Ibid.*, pp.140-41을 참고하라

기도하려는 사람들의 자세를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는 1절의 세 종류의 악인과 그들의 행태가 결국은 뿌리도 없이 바람에 날려 버릴 '겨'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일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고, 이 메시지는 단순히 시1편의 독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편을 사용하는 잠정적 독자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3절에서 시인은 의인의 모습을 식물인 나무와 잎에 비유했다. 이제 4절에서는 그 비유의 연장 선상에서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는 것이다. 의인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늘 푸르르며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였는데, 그에 반해 악인은 뿌리 뽑힌 부평초처럼, 그리고 정처 없이 날려다니는 겨와 같이 더우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사람들에게 불편만 주는 그런 겨와 같은 신세가 악인의 모습임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시의 첫 부분에서 악인을 묘사하는 세 용어가 사용된 것처럼 3절에서는 의인을 묘사하는 세 가지 비유가 사용되도록 채택된 것 역시 우연한 일로 보기 힘들다.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결국은 의인임을 상기시키는 환유법인 것이다. 또한 2절의 기쁨과 기쁨에 겨워 흥얼거리는 모습의 묘사 역시 5절의 의인의 회중에 끼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악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데, 결국은 크라이막스이며 결론 격인 6절에서 그것을 한 절 안에 있는 반의 평행구조속에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8) 부분적 대차구조법:

시1편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도 대차구조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논증했었다 그런데 그런 큰 틀에서의 대차 대조법뿐 아

니라 절과 절 사이의 의미 단락을 건너 뛰어 또한 대칭과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5절과 6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a-b-c-b'-a')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5절 하반절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과 회중을 형성하는 의인이 다음 절의 아도나이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6절 상반절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과 하반절의 망하는 길을 가는 악인들로 구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표로 보면,

A 악인들

B 의인들

C 여호와

b의인들

a 악인들

이라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9) 반복 강조법과 메리즘 사용: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다른 차원에서 설명되었지만, 시1편에는 유사한 개념과 용어가 반복 강조되면서 집중력있고 완성도 높은 주제 강조 기법을 완성하고 있다. 보통의 평행법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여기서는 악인을 나타내는 르사임이 4회에 걸쳐 반복 사용되었고, 죄인을 나타내는 하타임이 2회 강조되었다. 율법이라는 토라가 두번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도나이도 두 번이 사용되었으며, ‘안뎀’을 강조하는 부정어가 6회나 사용되었다. 그뿐 아니라, 그런 반복 강조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소위 ‘메리즘’이라 하여 ‘밤과 낮’이 한 의미 단락을 구성하며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의 천지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낮과 밤등의 합성된 의미 덩어리를 사용하여 그 일의 항구성과 계속성을 강조하는 기법이라 하였다.<sup>32</sup> 시 19편이나 119 편등에

말씀의 맛과 즐거움을 찾아 애쓰는 사람들 묘사할 때에도 공히 사용되는 히브리시의 특별한 용례중의 하나라 하겠다.

#### 10) 시 1편에 사용된 지혜시적 요소들:

이런 문학적 기법들 외에도 시1편은 전형적인 지혜시로서의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분법적 구도와 반의적 대구법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길을 단순 명료하게 대조시키는 기법이 그것이다. 앞의 문학 기법 분석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지만 의인을 ‘나무’에, 악인을 ‘겨’에 비유하는 것은 다른 지혜문서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기법이다. 또한 2절의 토라에 대한 강조 역시 구약 지혜 문서의 전형적 강조점과 일치하는 것이다.<sup>33</sup> 문제는 이런 지혜시적 요소가 시 1편의 위대한 서론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1편을 지혜 구함을 위한 지혜시가 아니라 시 1편의 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혜문헌적 기법을 사용한 시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 시가 그냥 단순한 지혜시의 한 종류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시1편의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그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주제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런 지혜시적 요소가 그점을 더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된다.

#### 4. 시 1편의 주제

위에서 우리는 단지 6절로 구성된 시 1편에 적용되거나 사용된 여러가

<sup>32</sup> 손석태, *Ibid.*, p. 94. 여기서 손석태 교수는 이 메리즘(Merism)의 용법을 “서로 반대되는 어휘를 합성한 이 어휘는 ‘항상’,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sup>33</sup> 성경에 사용된 나무와 겨에 관한 비유에 관하여는 아래의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라. 욥 8:11-19; 욥 21:18; 시 18:43; 35:5; 52:10; 83:12; 92:13-15; 잠 12:12; 사 17:13; 29:5; 호 13:3; 암 9:9. 그리고 ‘토라’에 대한 강조는 Pinto B. de., “*The Torah and the Psalms*”, *JBL*86(1967), pp.154-74.을 참고하라

지 문학적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짧은 6절 안에 9개의 문학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한 차례씩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된 기교까지 합하면 시1편에 사용된 문학적 기교들은 열 가지도 넘는다는 말이 된다. 우리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많은 문학적 기교를 뽐내고 있는가? 그렇게 다양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면서까지 강조하려던 본 시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것은 시편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시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즉 찬양집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기도들/테필라’가 있다. 시편에 탄식이나 탄원,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많다 하여 시편이 기도집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시편을 찬양집이라 할 때에 그것은 성전에서의 예배 정황을 상정하고 있다. 시편이 예배 정황을 상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전 즉 성전 파괴 이전의 상황만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들이 바로 시편 해석의 난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수집 되었으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들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다시 이 글은 시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그에 걸맞는 위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본고는 시1편이 전체 시편의 문을 여는 서론으로서의 위용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작시되고 배열되었음을 사용된 다양한 문학적 기법의 동원을 통하여 논증하려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시1편의 서론됨을 기꺼이 인정한다. 그래서 ICC 주석의 저자인 C.A. Briggs 같은 이는 시1편의 중요성을 “As we all know, Ps.1 has been considered as an Introduction and representative of whole Psalter in Old Testament” 시편의 서론으로서 그리고 모든 시편의 대표로서 이해하며 강조하고 있다.<sup>34</sup> 또한 P. Collins 같은 이는 이 시가 전체 시편의 서론으로서 ‘특별하

게 작시’ 되었음도 강조한다.<sup>35</sup> 이들 뿐 아니라 많은 시편학자들이 시1편을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그리고 그 위용에 걸맞는 특별한 고려를 가지고 작시되었음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특별한 고려의 내용이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 기법의 사용’이라는 관점을 예를 들어 논증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시편 연구 학도들에게 이 논고의 조그만 기여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평행법과 대치구조 그리고 두운과 각운의 사용과 운율을 맞추기 위한 명사서술 기법의 사용 및 식물을 비유로 들어 시각적 강조법까지 동원되는 많은 문학기법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는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이고 또한 본 시1편의 주제이기도 하다.

시1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2절이다. 그는 자신의 기쁨을 세속적인 것에서 찾던 과거를 버리고 이제 자신의 기쁨을 주님의 율법에서 찾고 있다. 그런 율법을 자신의 기쁨으로 찾는 것에 더하여 그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복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그런 수동적인 상황에서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만 가지고는 주님의 계명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런 악에서 떠나 무언가 ‘좋은 것’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본문 2절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님의 율법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며, 그것을 묵상하며 기쁘게 생활화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의 자세인 것이다. 그런 복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3절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가 못하다. 악인이 누구인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

<sup>34</sup> Briggs C.A., *The Book of Psalms ICC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LTD, 1987), p. 3. 여기에는 많은 시편학자들이 동의한다. 예를 들면 C. Westermann, K. Seybold, N. Whybray, T. Craven, B.W. Anderson, E.S. Gerstenberger, P.D.

Miller Jr. HJ. Kraus 등이 있다.

<sup>35</sup> Collins p. *Ibid.*, p. 41.

고 스스로 망하여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인 것이다. 이런 존재의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계명을 즐겁게 준수하는 자들이며 시편의 독자들은 시편을 읽고 묵상해가며 이런 자리에 이를 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본시 저자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것이다.

## 5. 결론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시1 편은 시편의 서론격이다. 구약의 시편에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굳이 H.궁궐의 양식비평의 분류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시편에는 탄식과 감사, 찬양과 지혜등 많은 성격이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의 시문학적 기법 역시 다양하다. 평행법에서 시작하여 답관체와 운율, 좌우대칭구조법및 다양한 비유법등이 동원되었다. 지혜시가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예전을 위한 시들이 있다. 혼자 경건한 시간을 갖는 개인의 묵상을 위한 시가 있고, 국가적 공동체적 목적에 기여하는 시들이 있다. 그렇게 다양한 목적과 기능이 있기에 시편은 예로부터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래서 개혁자 M.루터는 “시편은 작은 성서라고 불리워 마땅하다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략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 시편은 진정 뛰어난 안내서이다”<sup>36</sup>라고 평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시편의 웅장한 스케일을 모두 담아 그것도 단순 명료하게 대표작을 지어 내는 작업은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시1 편이 이렇게 많은 공교한 기법들이 동원하여 다듬어 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논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겠다. 시1 편은 단순히 예전이나 어떤 의식을 위해 작시된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한 시만도 아니다. 시1 편은 시편 전체의 성향을 예측하게 하는 지시 등 같은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한 깊이와 묵상을 통해 시편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고 있는 위대한 시이다.

## [참고도서]

- 김이곤 *시편*, 대한기독교서회창립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우 *시편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 박동현 *아쉬레 하이쉬 히브리어 시편 읽기*.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 2008.
- 김상기 “시편 편의 구조적 이해”, *성경원문연구*(32), 2013.
- 손석태 “시편1 편의 구조와 해석”, *개신논잡*, 2002.
- 김혜윤 “시편1 편에 대한 비평적 연구: 지혜시적 성격과 문학적 구조” *신학전망*(153), 2006.
- Anderson, G. W. “A Note on Psalm I 1”, *VT* 24 (1974), 231-233.
- Botha, P. J. “The junction of the two ways. The structure and theology of Psalm 1”, *OTE* 43 (1991), 381-396.
- Botha, P. J. “Intertextual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 *OTE* 18 (2005), 503-520.
- Bullinger E. W. *Figure of Speech used in the Bible*. Grand Rapids, Michigan, 1990.
- Collins, C. J. “Psalm 1: Structure and rhetoric”, *Presbyterian* 31 (2005), 37-48.
-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Waco: Word Books, 1995.
- Creach, J. F. D. “Like a Tree Planted by the Temple Stream: The Portrait of the Righteous in Psalm 1:3”, *CBQ* 61 (1999), 34-46.
- Crenshaw J. L. *The Psalms: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Cambridge, 2001.
- Dahood, M. *Psalms I 1-50*, (AB). Garden city & N.Y.: Doubleday, 1965.
- Gunkel H. & Begrich J. *Einleitung in die Psalmen*. Göttingen, 1933.
- Kraus H. J. *Psalms 1-59* Tr. By Oswald H.C. Minneapolis, Augsburg Pub.House, 1988.
- Lund, N. W. “Chiasmus in the Psalms”, *AJSL* 49 (1932/33), 281-312.

<sup>36</sup> Luther M., *Vorrede auf den Psalter*, 1534, Tr. In English “Preface to the Psalter” in *Luther’s Works*, vol. 35(Philadelphia, Fortress, 1960), pp. 253-57.

- Miller P. D. JR. *Interpreting the Psalms*. Fortress Press, 1986.
- Flint, P. W. and Miller, P. D. JR., eds. *The Book of Psalms. Composition and Receptio*. Leiden: Brill, 2005.
- Gerstenberger, E.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FOTL 14*. Grand Rapids: Eerdmans, 1988=1991.
- Kraus, H. J. *Psalmen 1-59*, (BK XV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Neusner, J. *Tosefta*, (Vol 2). Pealody: Hendrickson, 2002.
- Seybold, K. *Die Psalmen, HAT I 15*. Tübingen: Mohr, 1996.
- Tagliacarne, P. "Grammatik und Poetik. Überlegungen zur Indetermination in Psalm 1", Gross, W., Irsigler, H. and Th. Seidl, (Hgg.), *Text, Methode und Grammatik*, Fs. W. Richter zum 65. Geburtstag, St. Ottilien 1991, 549-557.
- Reif, S. C. "Ibn Ezra on Psalm I 1-2", *VT 36* (1984), 232-236.
- Rubin, A. D. "The Form and Meaning of Hebrew *ašrê*", *VT 60* (2010), 366-372.
- Terrien, S.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 Cambridge: Eerdmans Pub., 2003.
- Weber, B. "Psalm 1 als Tor zur Tora JHWHs. Wie Ps 1 (und Ps 2) den Psalter an den Pentateuch anschliesst?" *SJOT 21* (2007), 179-200.
- \_\_\_\_\_. "Psalm 1 and the Psalter", *OTE 19* (2006), 237-260.
- Vogels, W. "A Structural Analysis of Psalm 1", *Bib 60* (1979), 410-416.
- Westermann C. *The Living Psalms*, Tr. by J.R. Porter. Edinburgh, T.&T. Clark LTD, 1989.
- Zenger, E. ed.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salms, BETL CCXXXVIII*. Leuven: U. Peeters, 2010.